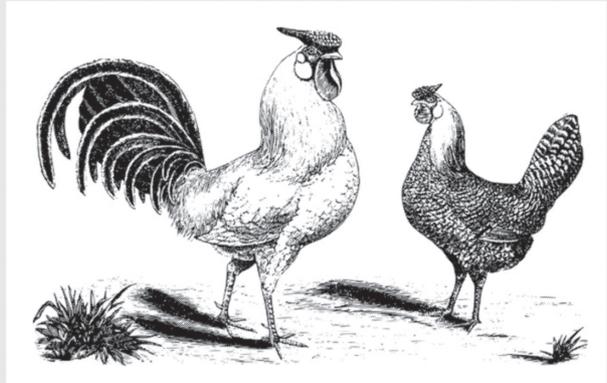


## 계유오덕(鷄有五德)

Q. 예부터 조상들이 새해 첫날에 닭 그림을 벽에 붙여 액이 물러나고 복이 오기를 빌었다고 하는데, 닭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 인가요?



A. 닭은 아침을 알리고, 귀신을 쫓는 영험함을 가졌다고 여겨지며 다섯 가지 덕(德)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첫째 仁(인), 하나의 모이통에 모이를 부어두면 여러 닭들이 싸우지 않고 모이를 쪼아 먹습니다. 먹이에 대한 다툼이 없음을 보고 성품이 어질다고 생각하여 '仁'이라 합니다.

둘째 義(의), 닭은 싸움에 임했을 시 자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고 오로지 싸움에만 임하여 '義'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셋째 禮(예), 닭은 항상 벼를 달고 다닙니다. 그 모습이 언제나 단정하게 관복을 갖추고 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라 해서 '禮'라 불렀습니다.

넷째 智(지), 닭은 자기 새끼를 위해서나, 자기가 속해 있는 무리를 위해 언제나 경계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을 보고 지혜가 있다고 하여 '智'라고 합니다.

다섯째 信(신), 닭은 매일 아침 어김없이 울어 사람들을 깨웁니다. 하루도 어김없음을 두고 말하길 '信'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닭의 다섯 가지 덕목을 말한 '계유오덕(鷄有五德)'입니다.

출처 : 한시외전(韓詩外傳)

※ 본란은 독자들에게 사양, 유통, 질병, 시설 등 전반적인 양계에 관한 질문을 받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답변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메일을 보내주세요.  
ch-spirow@hanmail.net(장성영 기자), wg1167@hanmail.net(임설희 기자)